

지역 소식통

대선 지역 공약사항 긴급 점검

완주군 철도관광객 본격 유치

완주군은 지난 13일 코레일 관광열차를 이용한 단체관광객 130여명이 완주군의 주요관광지를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여행은 코레일여행센터와 코레일 전북본부의 기획여행상품으로, 관광객은 삼례역에 도착한 후 삼례문화예술촌, 대승한지마을, 대한민국의술메이카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완주군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기차를 이용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고 그동안 캠퍼서 개최 및 철도여행상품을 개발했다.

군 관계자는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맞춤형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관광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철도 단체관광객 100여명이 완주의 관광지를 여행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새만금 사업 등 신정부 정책에 반영 대응체제 방안 논의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제19대 대선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김제시 관련 대선공약사항들이 신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대응체제 방안 등을 점검했다.

먼저 대선 종료 후 바로 다음날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대선 관련 지역 공약사항을 긴급 점검했으며 새만금 관련사업 등 대선 공약사항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스마트 농기계부품 및 농기계품질테스트베드구축'을 비롯한 대통령령 공약사업과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첨단 중

자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김제시에서 발굴·건의중인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전북 최우선 과제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것처럼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등 주요인프라 조기구축과 공공주도의 농생명용지조성, 첨단농업 중심지 육성 등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에 탄력을 받아 명실상부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로의 합찬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내 5개 농생명클러스터 육성에 김제지역의 민간육성연구단지

(중자), 첨단농기계종합지원센터(OCT농기계) 및 새만금농생명5공구(첨단농업) 등 3개분야가 포함되어 총자립농업연구구축사업, '새만금간척지 첨단농업연구구축사업', '새만금수목원조성' 등 국가예산확보 탄력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에 중추적 역할로 농업의 첨단화와 농생명산업의 허브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건설 시장은 "대선공약사업 반영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동향 파악과 조속한 논리보강을 통해 정치권 방문 건의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 '머리 맞대다'

삼례책마을 그림책 포럼 성료

완주군이 삼례책마을 내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이 모여 그림책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그림책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15일에 열린 이번 포럼은 그림책에 관심 있는 주민과 전문가, 그림책 동아리 회원, 문화예술인 등 100여명이 모여 그림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림책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동평론가 김지은씨는 <모두를 위한 그림책> 강연을 통해 그림책이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계층에 읽는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그림책 작가 정승각씨는 <그림책과 예술> 강연을 통해 종합예술로서의 그림책의 가능성을 제시 해 그림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그림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 해 그림책 읽는 분위

기 확산으로 통해 건전한 사회 풍토를 만들고 향후 책마을 내 조성될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문화 공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은 2011년 책마을 조성을 정책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3년 책박물관과 책공방 조성, 2016년 고서점, 현재방 등 책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책마을 사업을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 계획 중이다.

포럼에 참석한 이서면 이숙례씨는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림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며, 내가 살고 있는 완주군에 전국 최초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이 만들어진다니,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이 아이들은 물론 모든 이에게 인식처가 되길 희망한다"며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에 많은 기대감을 전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부량면, 쓰레기 투기지역 화단으로 탈바꿈

김제시 부량면은 15일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지속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서이마을 이장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주민들이 앞장서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화단정비 작업에 나섰다.

화단 정비 후 코스모스 씨앗을 심고 쓰레기 더미가 아닌 코스모스 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화단으로 변화되어 마을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보건소,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4개교 운영

김제시보건소에서는 15일부터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4개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이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아동들이 교육기관에서 보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관리 사업이다.

올해 대상 기관은 봉남·황산초 2개교와 황산·백석유치원 등 4개교로 전교생 대상 알레르기 질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아동을 선별하여 일상관리를 돕고 환경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기관 내 알레르기질환 악화인자를 감시 관리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커플의 · 커플에 의한 · 커플을 위한'

'스토리텔링 중심 새로운 개념' 완주 프리포즈축제 성료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완주 프리포즈 축제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축제이자, 전국 프리포즈의 관광명소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커플의, 커플에 의한, 커플을 위한'이라는 주제로 '2017 완주 프리포즈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지난해 첫 번째 행사보다 늘어난 참여와 관심이 돋보였다.

특히 커플들을 위한 풍성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공연 등이 진행됨에 따라 3000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혼은 물론 기존 커플들이 행사를 찾아 드레스쇼를 비롯해 사랑의 세레나데, 최강커플 미션 게임 '좋다'고 말해, 사랑의 오작교, 연애특강 토크콘서트, 두근두근 OST 음악방송, 프리포즈 라운지, 프리포즈 전시회(커플사진, 세출편지, 세기의 사랑 등) 등을 즐기며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장 구석구석 조성된 포



토즌은 축제 전부터 SNS에 공개되어 프리포즈 인증샷을 촬영하기 위한 커플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해에는 작년보다 커플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진행했다"며 "많은 커플들이 축제장을 찾아 전국적인 프리포즈 명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행사에 컨텐츠를 다양화해 커플들이라

면 꼭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 프리포즈축제는 '모악산과 경각산의 사랑이야기'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축제가 개최되어 모악산 인근 지역에서 사랑의 맹세를 하면 그 사랑이 꼭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축제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보건소, 찾아가는 노래교실 31일까지

김제시보건소는 15일부터 31일(수)까지 관내 171개소 한울타리 행복의 집 중에서 주민참여가 높고 적극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28개소를 선정하여 입소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래는 꽃향기를 타고~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실시한다.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많아지고 이에 따른 노인우울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노래교실은 외부강사인 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노래를 통해 힘을 얻고 슬픔을 위로받고 아픔을 잊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공감과 정서적 체험을 넓혀주고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찾아가는 노래교실에서는 여자의 일상, 여자는 눈물 인가봐, 돌아와요 부산항, 사람은 누구나 하나 시계바늘, 백세인생 등 손뼉 치며 노래를 함께 부르고 춤도 추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는 그동안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러한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통하여 노인 우울 불안을 해소하고 삶을 즐기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감싸주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자존감 확립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 될 전망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지평선 팜 합창단, '찾아가는 농가 음악회' 개최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15일 김제시 및 관계자들의 참석속에 농촌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농가 음악회'를 지난 13일 백구면 향산아트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의 문화생활 활력증진 및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평선 팜 합창단은 2014년 결성되어 현재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단원들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다.

단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매주 목요일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합창

곡을 연습하여 농촌문화행사 및 지평선 축제등에서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평선 팜 합창단의 박종원 단장은 "도시에 비해 음악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농촌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한 지평선 팜 합창단의 찾아가는 농가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음악회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합창도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주고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남원시의 봄 축제에 물들다

신원사도부림축제

2017 완주 프리포즈 축제

춘향제 (5월)

철쭉제 (4~5월)

지리산둘레길 (3~5월)

요천번 빛꽃 (4월)

여행은 판다를 나와의 만남

요천자전거길 (5월)

남원시

춘향남원시향의 밤